

# 마태 16

- 1. 요나의 표적.....1
- 2.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.....2
- 3. 베드로가 왕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.....3
- 4.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예고하심.....4
- 5.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.....5

## 1. 요나의 표적

(마 16:1)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 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

(마 16:2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,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, 하고

(마 16:3) 또 아침에는,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궂으리라, 하는도다. 오 너희 위선자들아,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?

(마 16:4)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,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.

(막 8:11)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

(막 8:12)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,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?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, 하시고

(막 8:13)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니라.

(눅 12:54)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, 소나기가 오는도다,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

(눅 12:55)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, 더우리라,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.

(눅 12:56) 너희 위선자들아,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?

## 2.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

(마 16:5)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.

(마 16:6) ¶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, 하시니

(마 16:7)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,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, 하거늘

(마 16:8)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,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,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?

(마 16:9)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?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

(마 16:10)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?

(마 16:11)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? 하시니

(마 16:12)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.

(막 8:14)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.

(막 8:15)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,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, 하시니

(막 8:16)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,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, 하거늘

(막 8:17)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?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?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?

(막 8:18)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?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?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?

(막 8:19)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 가운데서 떼어 줄 때에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?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열두 바구니이니이다, 하매

(막 8:20) 또 일곱 개를 사천 명 가운데서 떼어 줄 때에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?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, 일곱 바구니이니이다, 하거늘

(막 8:21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? 하시니라.

### 3. 베드로가 왕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

(마 16:13)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,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[아들]을 누구라고 하느냐? 하시니

(마 16:14) 그들이 이르되, 어떤 이들은 주께서 [침례자]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, 하거늘

(마 16:15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 하시니

(마 16:16)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,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[하나님]의 [아들]이시니이다, 하매

(마 16:17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바요나 시몬아, 네가 복이 있도다.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[아버지]시니라.

(마 16:18)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, 너는 베드로라.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.

(마 16:19)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,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

(막 8:27)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,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 하시니

(막 8:28) 그들이 대답하되, [침례자] 요한이라, 하나 어떤 이들은, 엘리야라,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,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, 하나이다, 하매

(막 8:29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,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, 하매

(막 8:30)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.

(눅 9:18)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하더라.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,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 하시니

(눅 9:19)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, [침례자] 요한이라, 하나 어떤 이들은, 엘리야라,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의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, 하매

(눅 9:20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, [하나님]의 그리스도시니이다, 하매

리리라, 하시고  
 (마 16:20)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.

#### 4.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예고하심

(마 16:21)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 
 (마 16:22)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, [주]여, 그럴 수 없나이다.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, 하거늘  
 (마 16:23)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, 사탄아,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.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. 네가 [하나님]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, 하시니라.

(막 8:31) 또 그분께서 사람의 [아들]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 
 (막 8:32) 드러내 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 
 (막 8:33)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, 사탄아,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. 네가 [하나님]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, 하시니라.

(눅 9:21)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 
 (눅 9:22) 이르시되, 사람의 [아들]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, 하시니라.

## 5.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

(마 16:24)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,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.

(마 16:25)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,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.

(마 16:26)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?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?

(마 16:27) 사람의 [아들]이 자기 [아버지]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,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.

(마 16:28)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[아들]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, 하시니라.

(막 8:34)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,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.

(막 8:35)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.

(막 8:36)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?

(막 8:37)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?

(막 8:38)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[아들]도 자기 [아버지]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, 하시니라.

(눅 9:23)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,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.

(눅 9:24)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.

(눅 9:25)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?

(눅 9:26)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[아들]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[아버지]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.